

# 약이 되는 식물

## ④ 고본(藎本)



안 덕 균 교수  
〈경희대 한의대〉

세상에는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기질은 성품도 열굴도 족보도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이가 많다. 그런가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다스린다고 하는 한약도 이름만 같지 실제는 형태와 약효와 족속이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경우 같은 약인줄 알고 같은 치료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이 얼마나 우매한 노릇인가.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시중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예를들면 임상치료에 가장 긴요하게 활용되는 당귀, 해동피, 독활, 고본, 후박, 진교, 방풍, 인진, 상기생, 곽향, 진피, 사삼, 속단, 하수오 등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란을 통하여 현재 한의학임상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약재들에 대한 실상과 효능상의 차이를 가려 올바른 이해와 투약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연재코저한다.

### 1. 고본(藎本)

이 약은 신농본초경에서부터 약용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기원식물로는 미나리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초본식물인 고본 *Ligusticum sinensis*의 뿌리줄기를 약용하고 있는데 이 식물은 주로 중국의 호남성, 사천성, 요령성 등지에서 생산이 되지만 국내에는

여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아마도 이와같은 기원식물의 오류는 우리의 학문적 암흑기에 일본의 체제를 본받아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이를 바꾸지 못하고 관습과 탄성에 의하여 이 약을 넣으면 고본의 효능을 다 하겠지 하고 믿어왔다. 이런것이 보사부에서

전혀 자생되지도 않으며 재배하는 약도 아니다. 이 식물외에 요령고본 L. jeholense의 뿌리줄기를 고본으로 사용하

고본의 진위품 차이

	진 품	위 품
기원식물	<i>Ligusticum sinensis</i>	<i>Angelica tenuissima</i>
약용범위	뿌리줄기	뿌리
형 태	불규칙한 결절상으로 원주형이며 부등켜 안은듯이 구부러져 있다. 가지가 나있는데 길이는 3~10cm, 직경 1~2cm이다. 결면은 적갈색 또는 암갈색이며 거칠고 옆으로 뺨은 주름이 있다. 윗측에는 여러개의 줄기가 붙어있던 함몰부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형이다. 아랫측에는 다수의 점상(點狀) 돌기의 뿌리흔적과 잔뿌리가 있다. 비교적 무게는 있으나 절단하기 쉽고 절단면은 황색 또는 황백색으로 섬유상이다.	고르지않게 갈라진 긴 원주형이고 길이 5~9cm 지름 7~20mm 윗부분에는 줄기가 붙어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결면은 회갈색~갈색이며 결은 단단하다. 적인면은 황백색이며 꺼칠꺼칠하고 중심부에는 비어있는 것도 있다.
기 미	냄새는 짙고 향기가 있으며 맛은 맵고 쓰다	특이한 향기가 있으나 맛은 특효는 듯한 매운맛이 있다.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고본은 같은 미나리과에 속한 고본 *Angelica tenuissima*의 뿌리를 약으로 써 왔다. 소위 산에서 야생하는 고본은 진고본(眞藎本)으로 유통되고있으며 재배품은 식고본(植藎本)으로 판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다른 약재, 사삼, 후박, 당귀, 인진 등등에 대하여서는 그간에 연구에 의하여 오용되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나, 정작 고본에 대하

발간한 한약규격집에서도 잘못되었고 근간에 발간된 생약한 약용식물학 본초학에서 나타나는 현실들이다.

국내에서 고본을 임상에 쓰거나 재배할 때에 앞으로 중국에서 재배되는 고본을 사용해야만하고 국산은 다른 약명을 붙여서 효능도 다시 분류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상효과가 계속 연구발표되어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안덕균 교수

# 농민의 소리

## 대처약용작물의 생산재배자금 알선을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봉은부락" 생약농민 26농가는 급년에 「사삼」을 집단으로 재배하고 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재배면적 1만7천4백여평 전체가 타 버리고 종자마저도 한톨도 받질 못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다만 조급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선 가을 파종을 위하여 대처 작물의 생산 재배 자금 알선 및 약용작물 재배, 수확 시기 기계 영농화에 따른 파종기 및 수확기 등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가지고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것을 진정합니다.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김광춘〉

## 수출전략품목에 "비료" 등 지원을

전남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종빈입니다.

UR에 대처하여 생약협회

전남 정형모 지부장과 여천군 조기문 사무소장의 지도로 군내리 농가 54가구는 수출품목인 삼도시호 3만8천7백평 농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군내리에서 삼도시호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서로 많은 수확을 올리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재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려고 가뭄때는 서로 위로하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는 오르는 데 삼도시호 수매가격은 3년 전 kg당 1만8천3백원 하던 것이 지금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고추농사나 벼농사에도 비료와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타 작물에는 정부지원이 많은데 비해, 수출전략품목인 삼도시호에는 이렇다 할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재배의욕도 서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재배권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약협회에서 정부(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로부터 얼마간의 지원이라도 받는다면 농민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고품질의 생약개발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면 결국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남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고종빈〉

# 문화단신

## 「서울, 새로운 탄생」 전시관 내달 초 완공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재현될 「서울, 새로운 탄생」 전시관이 이달 초 완공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경희궁터에 지난 3월 착공, 지상 2층의 철골구조물을 세워 9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94~1994년 서울의 역사, 주제별 서울 이야기, 21세기 서울 및 세계도시 비교전을 개최한다.

## 「한국인의 얼굴」주제 26일 공개 학술강연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조유

전)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박물관내 강당에서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공개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조용진교수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인출교수가 각각 「지역별 얼굴 특징으로 본 한국인 형성의 경로」와 「한국인의 얼굴 미의식」에 대해 강연했다.

## 서울문화상품전 출품작 모집

서울시는 정도 6백년을 맞아 열리는 서울문화상품전(10월 7~13일)에 참여할 상품을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출품대상은 서울 이미지를 소재로한 생활용품, 민속용품, 기념품, 공예품, 도서지도, 서체 엽서, 첨단문화상품 등이다.

# 두충잎 수매안내

UR협상 타결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며, 약용작물 수출은 년차적으로 급격히 격감하고 있는 이때, 국내 약용작물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풍토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내 두충농가에 다소나마 소득증대에 기여코저 합니다.

두충재배농가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에 의하여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 아 래 =

- 채취시기 : 94년 9월~11월까지 (3개월간)

- kg 당 수매가격 : 계약시 가격결정

※ 두충잎은 식품으로 가공 수출되는 원료용임으로 깨끗하게 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청주시 공판장장

충북 청주시 석교동 125-108 TEL : (0431) 52-6442 FAX : (0431) 223-6442